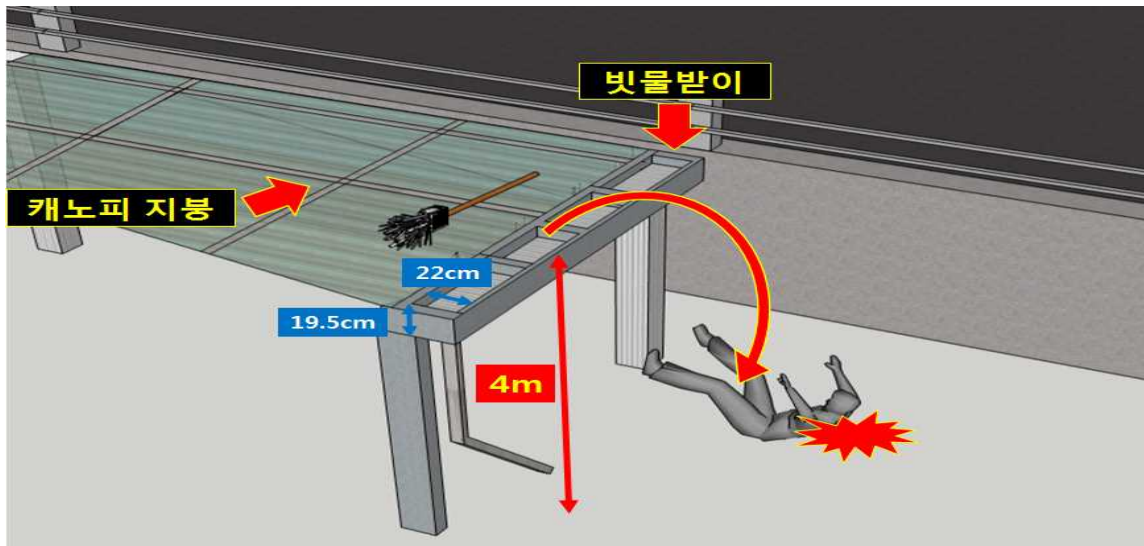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20년 3월 2일(월) 13시 40분경, 서울시 강서구 소재 사업장 캐노피 상부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빗물받이에 발을 헛디뎠다 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개구부 등 추락위험 안전조치 미 실시
 -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 실시 되어, 작업 중 떨어짐
- 보호구 미 착용
 - 안전모, 안전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미 착용함
- 관리감독 미흡 및 위험성평가 누락
 -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미 실시 및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누락됨



재해 예방 대책

-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
 - 안전난간,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,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
-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
 - 고소 작업 시 안전모, 안전대를 착용하고, 안전대를 생명줄에 연결하여 실시
- 관리감독 및 위험성평가 실시
 -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시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, 위험성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 실시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